

상호문화접근법을 적용한 고등학교 프랑스어 수업지도안 개발 연구

서영지
(서울대학교)

Seo, Yeongji.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tercultural teaching plan for high school French language teaching.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8, 97-116.

Foreign language education has so far put emphasis on the so-called communicative and cultural objective where learners communicate with native speakers in the foreign languages they have learned and then understand and execute the native speakers' cultures. However, the modern society, which has rapidly become a global villag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eans of communication, expects foreign language education to play a new role. This new role is taking into account not only the practical aspect of the communication, but also the educational goal of cultivating the ability to properly understand others' culture and hold a critical attitude toward one's own culture. The intercultural approach is emerging as a new approach that enables foreign language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2007 Amended Curriculum and 2009 Amended Curriculum used the term, "intercultural", but did not specifically state it, and thus it was little reflected in the textbooks. As a method of practically resolving this problem, we made an intercultural teaching plan by utilizing the cultural contents in the current textbooks.

Key Words: intercultural, intercultural approach, curriculum, intercultural competence, French language teaching.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국가 및 지역 간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장벽의 점진적인 제거로 전례 없이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현상을 '세계화'라고 부른다.

1990년대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국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와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국내에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인 180만여 명이고 이들은 201개국에서 들어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람,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는 것”(2009, p. 16)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목에서 지식, 기술, 태도, 즉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고루 가르치도록 권장한다.

외국어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바로 위에서 강조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외국어 교육은 이질성 경험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 그것은 또 하나의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친숙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모두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Byram, 1997, p. 3: 저자 역).

프랑스어도 마찬가지로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 두 교육과정은 언어와 문화 이해를 위한 ‘실용적 목표’와 ‘문화적 목표’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성 개발을 위한 ‘교육적 목표’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로써 외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을 넘어서 문화교육, 나아가 학습자의 인성과 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까지 고려함으로써 그 역할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현행 프랑스어 교육은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 한국의 프랑스어 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 의사소통접근법을 원용하고 있다. 의사소통접근법은 이 접근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원어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따라서 현행 프랑스어 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처음 두 목표는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목표인 교육적 목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의사소통접근법 자체가 의사소통이라는 실용적 목표를 강조하고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의 문화 이해와 실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어민 문화를 미화하고 그 결과 출신문화를 경시하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육 시수의 부족이나 교사 자신의 문화 지식의 부족으로 원어민의 일상문화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어민의 문화와 그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세계화와 지구촌화라는 현상은 외국어 교육의 교육적 목표를 점점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상호문화접근법의 일반적인 목표, 내용, 방법을 살펴보고,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상호문화적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해본 다음, 이 상호문화적 관점을 적용한 상호문화 수업 교안을 제작해 볼 것이다.

II. 상호문화접근법의 목표, 내용, 방법

‘상호문화적’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외국인 이민자의 자녀 교육 문제, 특히 언어학습 문제와 관련해 출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는 오랫동안 공화국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해 왔기 때문에 이민자 자녀라고 하여 그 어떤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 초에 많은 이민자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프랑스어 보충교육이 불가피해졌다. 처음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어 보충 수업을 제공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1975년부터는 그들의 출신언어문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출신언어문화교육을 상호문화접근의 출발점으로 본다(장한업, 2014, pp. 122-125). 이 출신언어문화교육이 이민자 자녀를 범주화하고 낙인찍는다는 비판이 일자, 1978년부터는 이 교육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1980년대 초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교육(F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에서는 외국인인 이민자 자녀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칠 때 그들의 출신 문화를 어떻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두고 Porcher, Zarate, Besse, Galisson 등 많은 학자들이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민은 1990년에도 계속되었고 특히 유럽 통합과 함께 심화되었다. 이러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는 2001년에 발간된 유럽공동참조기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참조기준 이후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FLE 교재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Springer, 2009, p. 519).

실제로 상호문화접근법은 모든 과목 중에서 특히 외국어교육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언어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다른 현실의 인식과 분류, 다른 가치,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하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요컨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문화와 접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Denis, 2000, p. 62). 실제로, 외국어교육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 외국인 학습자는 외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전해 주는 외국 문화를 접하게 한다. 결국 외국인 학습자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문화가 만나게 되는데, 상호문화접근법은 이 두 문화 사이의 관계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인다. 기존의 외국어교수·학습은 주로 외국어를 배워 외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지식도 강조해 왔다. 그러다 보니 외국어 수업에서는 목표 문화의 우수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게 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문화를 좋아하도록 만들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호문화접근법은 이런 다소 맹목적인 선호와 그것으로 인한 자기 문화에 대한 무시를 모두 경계한다.

이러한 상호문화접근법은 기존의 언어-문화접근법 또는 의사소통접근법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상호문화접근법을 의사소통접근법과 상

충하거나 의사소통접근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Abdallah-Pretceille, Zarate, Galisson 등의 많은 학자들은 상호문화가 교육적으로 풍요롭고 유익한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 “상호문화접근법, 의사소통접근법이라는 이 두 방식은 완전히 보완적이다. 왜냐하면, 상호문화접근법은 의사소통접근법에다 학습자 개인적, 사회적 성장을 위한 지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의사소통접근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Neuner, 1998, p. 112)이다. 이처럼 상호문화접근법은 의사소통접근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외국어 교육에서는 상호문화접근법을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호문화접근법의 목표는 무엇인가? 상호문화접근법의 첫 번째 목표는 학습자가 자신의 참조체계를 상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두 개의 다른 문화를 관계 짓고 그리고 자국 문화의 가치와 외국 문화의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참조기준 체계를 상대화하고 “자신의 관습적인 선택과 행동의 정당성”(Galisson, 1994, p. 25)을 재고하기 시작한다. 상호문화접근법의 두 번째 목표는 학습자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Charaudeau, 1990, p. 50). 학습자는 두 개의 문화를 동시에 접할 때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상호문화접근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두 개의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게 유도하는 교육이다. 세 번째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문화와 출신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자기 자신의 사고와 표상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다(De Carlo, 1998; Porcher, 1995). 이런 성찰은 지나친 국가주의나 민족중심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다른 문화 체계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Charaudeau, 1990, p. 53). 각 사회는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규범과 규칙은 일상생활 전체를 지배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규범과 규칙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상호문화접근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참조체계를 상대화하고, 미지에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목표 문화나 출신 문화에 대해 학습자가 가진 고정 관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하고, 다른 문화 체계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의 상호문화접근법의 목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상호문화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Windmüller, 2011, p. 38). 상호문화능력은 많은 학자들(Abdallah-Pretceille, 1999; Bennett, 1995; Byram, 1997; Deardorff, 2004; Lazar, 2007)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특히 Lazar(2007, p. 10)는 이 능력을 “상호문화적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문화능력은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상호문화능력의 평가 도구인 INCA(Inter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¹는 이 상호문화능력을 ‘모호함 수용성’, ‘행동의 유연성’, ‘의사소통적 인식’, ‘지식의 발견’, ‘이질성 존중’, ‘공감’으로 이루어진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이 하위구성요소를 교안 개발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한편, 상호문화접근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호문화교육학자는 타인의 문화보다는 타인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Abdallah-Pretceille(1999, p. 58)는 “상호문화접근법은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자 그의 문화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인과의 ‘만남’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대화자들은 서로 다른 표상(représentations)을 가질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민족중심주의에 빠져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상호문화접근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장애물에 대해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유럽평의회에서 개발한 *Kit pédagogique*²는 ‘문화’, ‘자문화’, ‘정체성’, ‘고정관념’, ‘편견’, ‘인종주의’, ‘차별’, ‘민족중심주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상호문화접근법은 문화적 사실을 관찰하는 데에 ‘교차된 시각(regard croisé)’을 강조한다(Chaves, 2012, p. 12). 이것은 목표문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 보고, 같은 문화적 사실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Besse(1993, p. 47)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타인을 이해

¹ INCA 는 유럽연합에서 2004 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상호문화능력 평가 지침서로, M. Byram, T. Köhlmann 등의 이론적 업적을 기반으로 한다. INCA 에서는 상호문화능력의 하위 구성요소로 다음 6 가지를 제시한다.

- ① 모호함 수용성: 모호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 ② 행동의 유연성: 자신의 행동을 서로 다른 요구와 다른 상황에 맞추는 능력
- ③ 의사소통적 인식: 상호문화적 상황에서 언어 표현과 문화 상황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식별하는 능력
- ④ 지식의 발견: 문화와 문화적 관습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
- ⑤ 이질성 존중: 자문화에 대한 믿음과 타문화에 대한 불신을 멈추고 호기심과 개방의 태도를 갖는 능력
- ⑥ 공감: 타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² *Kit pédagogique* 는 1995 년 유럽평의회에서 발간한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지침서로 현재 상호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침서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004 년에는 두 번째 판이 제작되었다.

한다.”고 하면서, 인간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동화’(assimilation)와 ‘이화’(dissimilation)를 번갈아 하거나 동시에 함으로써 외국문화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문화학습 방법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의 출발점을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찾는다. Abdallah-Preteuille(1999, p.109) 역시 상호문화접근법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한 활동”이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방법은 이질성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문화 교류의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Chaves, 2012, pp. 12-13).

지금까지 우리는 상호문화접근법의 일반적인 목표, 내용, 방법에 관해서 논의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호문화접근법은 국내 프랑스어 교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07, 2009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1.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재빨리 부응하기 위해 기존에 전면개정 체제에서 수시개정 체제로 바꾸었다. 넓은 의미에서, 2007 개정교육과정은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프랑스어 교육 체제는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체제에는 문화와 관련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성격’ 항목에서는 세 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실용적 목표, 둘째는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문화적 목표, 셋째는 모국어와 다른 한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인성을 개발한다는 교육적 목표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모국어와 다른 한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인성을 개발”(교육과학기술부, 2007, p. 144)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은 앞서 살펴 본 상호문화접근법의 목표와 상당히 일치한다.

다음으로, ‘목표’ 항목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프랑스어권 사람들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p. 145)라는 총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기존의 교육과정에서의 목표와 비교해 볼 때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

다면, 그것은 이해 대상이 되는 문화의 범위가 ‘프랑스’에서 ‘프랑스어권’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 총괄 목표는 다시 ‘언어 기능’, ‘문화’, ‘태도’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문화’, ‘태도’와 관련된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문화

- (1) 프랑스 어 학습을 통해 프랑스 어권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 (2) 프랑스 어권 국가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문화적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3) 프랑스 어권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프랑스 어 의사소통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 (4) 프랑스 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한다.

다. 태도

- (1) 프랑스 어로 의사소통을 해 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 (2) 프랑스 어권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보려는 태도를 가진다.
- (3) 프랑스 어권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타문화를 통해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pp. 146-147)

‘문화’적 목표의 항목 (4)는 “프랑스 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문화비교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비교주의적인 관점은 두 개의 문화를 단순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기 쉬워, 엄격한 의미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반면, ‘태도’적 목표의 항목 “(3) (...) 타문화를 통해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다.”에서 알 수 있듯이, ‘자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상호문화적 접근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용’ 항목은 다시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적 내용’은 프랑스 어권의 일상문화, 사회·문화적 현실과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을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 내용 구성 시 유의점을 보면 “프랑스 어권의 사회·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상호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p. 83)라고 하면서 문화 내용에서의 상호문화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강성영, 2005, p. 9).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상호문화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프랑스어 교육과정에서 ‘상호문화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한민주, 2010, p. 130).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점은 교수·학습 방법 내에 ‘문화’와 관련된 항목을 별도로 개설했다는 점이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 문화

- (2) 프랑스 어권 문화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대표적인 것 위주로 제시한다.
- (3)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되도록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방법 (2)처럼 프랑스 어권 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 위주로 제시”하는 것은 주어진 수업 시수와 교과서의 지면상 제약으로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자칫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을 심화시킬 수 있어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지양해야 한다. 방법 (3)의 경우,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외국 문화를 배우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의미하므로 상호문화적 접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와 관련된 언급은 교육과정의 ‘평가’ 항목에도 언급되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 평가 방법

- (가)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일상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나) 교과서에서 다룬 문화적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발표해보게 한다.
- (다) 교과서에서 다룬 문화적 내용을 한국 문화와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pp. 153-155)

이처럼 ‘평가’ 항목에서 문화 관련 내용을 따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평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다소 유감스럽다. 또한 ‘내용’에서 언급된 상호문화적 활용과 관련된 평가 방법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 집필된 교과서들은 문화와 관련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 교육과정에 의거해 집필된 교과서는 총 2종으로, *Le français I*(조항덕 외, 2012), *Le français I*(전경준 외, 2012)이 있다.

Le français I(조항덕 외, 2012)은 11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과에서 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루는 문화 내용은 교육과정의 ‘문화 내용’에서 제시된 항목으로 문화가 제시된 횟수는 46회에 이른다. 이 교과서에서는 주로 ‘Mini-infos’, ‘On explore la culture’라는 문화란을 통해서 프랑스 문화와 함께 프랑스 어권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On explore la culture’란의 끝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프랑스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우리는 서로 어떻게 인사를 나누는지 이야기하고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해 봅시다. (조항덕 외, 2012, p. 34)
- 반 친구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조사한 후, 프랑스와 비교해 봅시다. (조항덕 외, 2012, p. 70)

이 교과서는 6개의 과(1, 3, 4, 5, 7, 8과)에서 한국과 프랑스 문화를 비교해 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해 봅시다.”라는 단순 비교 형태의 제안에 그치고 있어 문화비교주의자적 관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런 식의 간단한 문장 형태의 제안이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질지도 의문스럽다.

Le français I(전경준 외, 2012)은 12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과에서 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프랑스 문화가 제시된 횟수는 40회에 이른다. 이 교과서에서 제시된 문화 내용 중 11회는 본문 내용에서 언급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Découvrez la culture francophone’, ‘Pause-café’라는 문화란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 ‘Découvrez la culture francophone’의 마지막 부분은 *Le français I*(조항덕 외, 2012)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비교해보자는 식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 형태와 결혼 풍습에 대해 조사하고,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해 봅시다. (전경준 외, 2012, p. 47)
- 200년 역사를 지닌 바칼로레아(le baccalauréat, 대학입학자격고사)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와 비교해 봅시다. (전경준 외, 2012, p. 61)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7 개정 프랑스어 교육과정은 문화를 모든 체제의 하위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어 문화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의 ‘성격’, ‘태도’, ‘내용’, ‘방법’ 항목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암시하는 표현이 교육과정상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들도 제6차,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와 비교해볼 때, 문화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문화를 별도로 소개하는 과는 없고, 단지 프랑스 문화와 비교하는 형태의 제안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단순히 양국문화의 비교만으로는 상호문화적 시도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2007 교육과정은 상호문화적 관점을 언급했지만 그 언급이 너무 추상적이고 단편적이어서 그것이 교과서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현행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프랑스어 교육과정과 거의 같지만 몇 가지 항목에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먼저, ‘목표’를 살펴보면, 기존의 기술에 “다원적 가치 수용”, “다중 언어·문화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의 양성”, “상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게 함”³ 이라는 표현들을 추가했다. 이는 다중언어주의(plurilinguisme)⁴, 다중문화주의(pluriculturalisme)를 표방한 유럽공동참조기준(CECR)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축소되었다. 이는 “(1) 프랑스어권의 일상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소된 것은 앞선 교육과정의 문화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학계의 비판(한상현, 2010; 한민주, 2010)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³ “(...) 다중 언어·문화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언어, 문화, 태도 측면이 결합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프랑스어 학습의 유용성을 돌아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 117)

⁴ 다중언어주의는 일정 수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일정한 사회 내에 있는 상이한 언어들의 공존을 의미하는 ‘다언어주의’와 구별된다. 다언어주의는 단순히 학교나 교육체계에서 언어 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배우게 하거나, 또는 국제사회의 의사소통에서의 영어의 지배적인 위상을 제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다중언어주의는 한 인간의 언어적 경험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사회 전체의 언어를 거쳐(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배우거나 직접적인 경험으로 습득한) 다른 민족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CECR, 2001, p. 11).

그렇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된 교과서는 문화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시기에 제작된 교과서는 『프랑스어 I』(조항덕 외, 2014), *Le français I*(조병준 외, 2014)이 있다.

『프랑스어 I』(조항덕 외, 2014)은 11개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과에서 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프랑스 문화가 제시된 횟수는 51회에 이르며, 이 중 10회는 본문 내용에서 언급되며, 나머지는 ‘La vie en France’, ‘Francophonie’, ‘Chanson & Poésie’라는 문화란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 이 문화 내용은 교육과정에서의 ‘문화적 내용’을 상당히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2007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2009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도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네 개 과(3, 6, 7, 8과)의 문화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단순 비교 형태의 문장만 언급될 뿐이다. 3과의 문화란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통계 조사를 찾아 프랑스 18-25세 젊은이들의 선호도와 비교해봅시다.

(조항덕 외, 2009, p. 61)

Le français I(조병준 외, 2014)에서는 11개의 과 모두에서 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 문화가 제시된 횟수는 38회에 이른다. 이 교과서에서 제시된 문화 내용 중 13회는 본문 내용에서 언급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Comprenez la culture’, ‘Allez plus loin’라는 문화란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 다루는 문화 내용은 인사, 직업, 지리, 교통, 축제, 휴가, 선호도, 화폐 등으로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문화적 내용’을 골고루 다루고 있었다. 이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 비교를 위한 제안이 모든 과의 문화란의 끝부분에서 연습문제처럼 제시되고 있다.

요컨대,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목표’, ‘문화적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 역시 상호문화적 접근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했을 뿐 그것을 교과서에 실제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IV. 상호문화수업 교안 예시

1. 교안의 구성요소

상호문화수업 교안은 상호문화접근법의 일반적인 목표, 내용, 방법을 현행 2009 개정 프랑스어 교과서 중 한권인 *Le français I*(조병준 외, 2014)과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제작되었다. 우리는 상호문화수업 교안의 구성요소를 ‘주제’, ‘관련 상호문화능력’, ‘목표’, ‘수업 형태 및 교수매체’, ‘시간’, ‘교수·학습 단계’라는 여섯 가지 항목으로 설정했다.

먼저, 상호문화수업 교안에서의 ‘주제’는 해당 차시에서 중심이 되는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주제를 선정할 때 현행 프랑스어 교과서에 나오는 언화행위(acte de parole)나 ‘문화란’에서 소개된 내용과 관련된 것을 선정했다. 이렇게 상호문화수업에서 다룰 주제를 선정한 후, 그것을 해당 과(Leçon)에서 배우는 프랑스어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시로 제시한 교안의 주제는 “Comme un Américain sans hamburger!”인데, 이 주제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제2과를 통해 국적과 국민을 나타내는 단어와 표현을 배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안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관련 상호문화능력’ 란에는 해당 수업을 통해서 신장할 수 있는 상호문화능력의 구성요소들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예시 교안〉은 상호문화능력의 구성요소 중에서 ‘이질성 존중’과 ‘공감’과 관련이 있다. 구성요소를 이렇게 정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주제로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은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인이나 프랑스인이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이나 프랑스인과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의 ‘이질성’과 함께 ‘공감’을 경험할 수 있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나머지 10개의 과도 해당과의 내용을 토대로 상호문화적 주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신장시키고자 하는 상호문화능력의 구성요소를 정해보았다.

표 1

단원별 상호문화적 주제와 상호문화능력의 구성요소

단원	상호문화적 주제	상호문화능력의 구성요소
1과	Je ne comprends pas ce geste!	행동의 유연성, 의사소통적 인식
2과	Comme un Américain sans hamburger!	이질성 존중, 공감
3과	Quels sont les métiers préférés des Français selon vous?	의사소통적 인식, 지식의 발견, 이질성 존중
4과	Il est de quelle couleur?	모호함의 수용성, 지식의 발견, 이질성 존중
5과	Je prends le métro.	지식의 발견, 이질성 존중
6과	Nous sommes le combien?	의사소통적 인식, 지식의 발견, 이질성 존중
7과	Tu pars en vacances?	행동의 유연성, 의사소통적 인식, 이질성 존중

8과	Qui êtes-vous?	모호함의 수용성, 이질성 존중, 공감
9과	Quel est son numéro de téléphone?	지식의 발견, 이질성 존중, 공감
10과	Ça fait combien?	지식의 발견, 이질성 존중
11과	Je t'invite chez moi.	모호함의 수용성, 행동의 유연성, 이질성 존중, 공감

교안의 세 번째 구성요소인 ‘목표’는 해당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목표’는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진술하였는데, 내용영역에는 해당 과에서 배우게 되는 학습요소를 진술하였고, 행동영역에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를 진술하였다. 예를 들자면, 〈예시 교안〉의 경우에는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목표 1. 외국인과 자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본다.
- 목표 2. 급우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목표 3. 급우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교안의 네 번째 항목은 ‘수업 형태와 수업 매체’이다. 상호문화수업은 학생 중심의 토의식, 탐구식 수업 방식을 택하였으며 2인 1조, 4인 1조의 소집단 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 이유는 상호문화접근법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상호작용(장한업, 2014, p. 120)이고, 이 두 수업 형태가 이러한 상호작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업 매체는 수업 시 필요한 매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수업에는 주로 파워포인트, 인터넷, 사진, 소품 등을 사용하였다.

‘시간’ 란에는 이 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재하였다. 본 상호문화수업을 위해 설정한 시간은 총 15분⁵이며, 각 학습단계(도입, 전개, 활용, 정리)별로 예상되는 소요 시간을 분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이 15분이라는 소요시간은 수업 진도나 다른 여건에 따라 다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여 그 시간을 유연하게 가감할 필요가 있다.

⁵ 한 단원을 5 차시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상호문화수업은 마지막 차시의 마지막 15 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 구성요소는 ‘교수·학습단계’로 실제 수업 전개 과정을 나타낸다. 상호문화수업 교안은 일반적인 수업 절차인 ‘도입-전개-활용-정리’ 단계로 교안을 구성하되 앞서 언급한 상호문화접근법의 절차를 여기에 적용하였다.

2. 교안 예시와 수업 전개 과정

다음은 앞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구성요소를 준수하여 만든 상호문화수업 교안이다.

표 2

예시 교안

주제	Comme un Américain sans hamburger!			
상호문화 능력	‘이질성 존중’, ‘공감’			
목표	1. 외국인과 자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본다. 2. 급우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급우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수업형태 및 수업 매체	1. 4인 1조 2. 파워포인트 3. 답안 종이, 필기구			
시간	15분			
단계	교사활동	학생활동	수업 매체	시 간
도 입 〈 문 화 개 념 이 해 〉	<p>①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서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학생들에게 물어본다.</p>  <p>Comme un Américain sans _____.</p>	<p>① 사진을 보면서 대답한다.</p> <p>E: Hamburger</p>	파 워 포 인 트	2 분

전개 〈타문화발견〉	②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대상에 대한 고정관점이 있음을 알려준다.	② 경청하면서 생각해본다.				
	① 조별로 한 장의 종이를 나눠주고 오늘 배운 국가명과 보기의 단어를 연결해 보게 한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참고하거나, 교사에게 물어보게 한다.)	① 조별로 상의하고, 나누어 준 종이에 단어를 쓴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 기</td> <td> pollution, politesse, thé, baguette, passion </td> </tr> </table> <p>Comme un Japonais sans _____.</p> <p>Comme un Chinois sans _____.</p> <p>Comme un Anglais sans _____.</p> <p>Comme un Français sans _____.</p> <p>Comme un Italien sans _____.</p>	보 기	pollution, politesse, thé, baguette, passion	Comme un Japonais sans politesse. Comme un Chinois sans pollution. Comme un Anglais sans thé. Comme un Français sans baguette. Comme un Italien sans passion.	파워포인트 , 답안 종이	5 분
	보 기	pollution, politesse, thé, baguette, passion				
② 조별로 쓴 답과 그 답을 쓴 이유를 말하게 한다.	② 조별로 본인이 쓴 답을 말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말해본다.					
③ 본 자료의 답은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임을 알려준다.	③ 경청한다.					

활용 〈 자 문 화 인 식 〉	① 조별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고 발표하게 한다. Comme un Coréen sans _____. Comme un Japonais sans _____. Comme un Chinois sans _____. Comme un Anglais sans _____. Comme un Français sans _____. Comme un Italien sans _____.	① 조별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쓴다.	파 위 포 인 트	6 분
	② 조별로 쓴 종이를 수합해서 교사가 칠판에 판서해 본다.	② 칠판을 보면서 경청한다.		
	③ 조별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해당 어휘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 발표를 시켜본다.	③ 조별로 발표한다.		
	④ 한국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임을 인식하게 한다.	④ 조별로 발표한다.		
정리 〈 타 문 화 관 용 〉	① 외국인과 자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② 급우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① 경청한다.		2 분

교사는 이 상호문화수업 교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첫째, ‘도입’ 단계는 우리가 ‘주제’로 선정한 문화 개념을 관련 과에서 학습한 언어 표현을 빌어 소개하는 <문화개념이해> 단계이다. 교사는 해당 과의

주요 어휘, 언화 행위를 상기시키고, 이와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본 차시에 학습할 문화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된다.

둘째, ‘전개’ 단계는 앞에서 도입한 문화 개념을 타문화, 즉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권의 문화로 확장시켜보는 <타문화 발견>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정해진 문화 주제와 내용으로 개인별, 조별로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 학습자는 프랑스와 프랑스(어권)의 문화에 대해서 학습자 서로가 가지는 다양한 관점을 발견하고 평소에 간과하고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셋째, ‘활용’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자문화를 새롭게 인식을 하게 하는 <자문화 인식>단계이다. 여기에서 학습자들은 ‘전개’ 단계에서 프랑스와 관련해 다른 것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 보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프랑스 문화와 한국 문화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는 <타문화 관용>의 단계이다. 여기에서 교사는 모든 문화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가 있으며, 문화적 사실을 관찰할 때는 ‘비판적 시각’, ‘교차된 시각’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목표 문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해 보고, 같은 문화적 사실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타문화를 관용하거나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호문화수업 교안의 실제 학습 단계를 소개해 보았다. 물론 이 학습 단계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단계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는 주어진 교육 여건이나 다른 주제에 따라 특정 단계를 더 강조하거나 학습 단계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시 교안에는 ‘타문화 발견’ 단계 다음에 ‘자문화 인식’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에 따라서 이 두 단계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다.

V. 결론 및 논의

상호문화접근법은 외국어 교육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호문화접근법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자문화 인식 - 타문화 발견 - 양문화 비교 - 타문화 관용 및 수용이라는 상호문화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모호함 수용성, 행동의 유연성, 의사소통적 인식, 지식의 발견, 이질성 존중, 공감이라는 상호문화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

접근법은 오늘날 외국어 교육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의사소통접근법을 대체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접근법이다.

2009 개정 프랑스어 교육과정은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육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상호문화적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프랑스어 교육과정은 이에 대한 단순한 언급에 그칠 뿐 실질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를 적용한 교과서에는 상호문화적 활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 내용을 상호문화접근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연결시키는 상호문화수업 교안을 예시해 보았다. 이 교안은 ‘주제’, ‘관련 상호문화능력’, ‘목표’, ‘수업 형태 및 수업 매체’, ‘시간’, ‘교수·학습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단원의 마지막 차시 중 마지막 15분을 활용하여 상호문화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물론 이러한 교안 개발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이 교안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학습자의 상호문화능력을 어느 정도 신장시킬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2014년 2학기에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상호문화수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수업이 학습자의 상호문화능력이 크게 신장시켰다는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우리는 이 통계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질 연구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상호문화수업 교안과 실행과 관련된 세 가지 교육적 제언을 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첫째, 다양한 주제의 상호문화수업 교안을 개발해 프랑스어 교사들에게 보급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작, 국적, 직업, 색깔, 교통수단, 축제, 휴가, 자기소개, 전화, 화폐, 초대 등의 총 11개의 교안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현행 프랑스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의하면 이 11개 주제 이외에도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 많다. 학교생활, 인사예절, 의식주, 시간, 선물, 대화예절 등과 같은 주제들은 상호문화적으로 접근하기가 특히 좋은 주제들이다.

둘째, 향후 개발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한다. 현행 교육과정은 상호문화적 관점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교과서에는 이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개발될 교육과정에서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좀 더 확대하고 그것이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랑스어 또는 외국어 교사 연수에서 상호문화접근법을 널리 보급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상호문화수업을 교사양성교육이나 교사연수 교육을 통해 프랑스어 교사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한다. 프랑스에서는 국제교육학습센터(CIEP)가 외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호문화와 관련된 연수를 실

시하고 있고, 일부 대학과 교사양성대학(IUFM)⁶에서는 교수들이 자신의 교육 속에 상호문화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한국의 미래 또는 현재 프랑스어 교사를 대상으로 상호문화접근법을 가르치는 교육과 연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성영. (2005).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프랑스 문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구성 방안. *프랑스어문교육*, 20, 7-22.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 개정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 서영지. (2016).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접근법 적용방안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장한업. (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서울: 교육과학사.
- 전경준 외. (2012). *Le français I*. 천재교육.
- 조병준 외. (2014). *Le français I*. 인천시 교육청.
- 조항덕 외. (2012). *Le français I*. 박영사.
- 조항덕 외. (2014). *프랑스어 I*. 박영사.
- 한민주. (2010). 프랑스어과 문화교육 내용의 재구성. *프랑스어과 교과 지식의 재구성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pp. 115-137).
- 한상현. (2010). 2007 개정 프랑스어 교육 과정 분석, *외국어교육*, 11, 307-330.
- Abdallah-Preteceille, M. (1999). *L'éducation interculturelle*. Paris: PUF.
- Bennett, C. (1995). Preparing teachers for cultural diversity and national standards of academic excellenc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6, 259-265.
- Besse, H. (1993, January). Cultiver une identité plurielle. *Français dans le monde*, 254, 42-48.
- Brander, P. (1995). *Tous différents,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 Conseil de l'Europe.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Charaudeau, P. (1990). L'interculturel entre mythe et réalité, *Revue Le Français dans le Monde*, 230, 50-53.
- Chaves, R. M. (2012). *L'interculturel en classe*. Paris: PUG.

⁶ 이 기관은 2014년 9월 1일자로 해체되었고, 교사교육고등사범학교(Écoles Supérieures du Professorat et de l'Éducation, ESPE)가 2013년 7월 법령에 의해 창설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 Conseil de l'Europe. (2001).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Les Éditions Didier. Paris.
- Deardorff, D. K. (2004).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 education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 De Carlo, M. (1998). *L'interculturel*. Paris: CLE international.
- Denis, M. (2000). Développer des aptitudes interculturelles en classe de langue, *Dialogues et cultures*, 44, 62.
- Galisson, R. (1994). D'hier à demain l'interculturel à l'école. *E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94, 25.
- Lázár, I. (2007). Développer et évaluer la compétence en communication interculturelle, Strasbourg, Conseil de l'Europe, 10.
- Neuner, G. (1998). Le rôle de la compétence socioculturelle dans l'enseignement et l'apprentissage des langues vivantes. *Le français dans le monde. Numéro spécial : Apprentissage et usage des langues dans le cadre européen*. Hachette Edicef, 97-145.
- Porcher, L. (1995). *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émergence et enseignement d'une discipline*, Paris, Hachette.
- Springer, Cl. (2009). Vers une pédagogie du dialogue interculturel: agir ensemble à travers les nouveaux environnements numériques sociaux. *Communiquer avec des langues et cultures, actes du colloque de Thessalonique*, 56-528.
- Windmüller, F. (2011). *Français langue étrangère(FLE) : L'approche culturelle et interculturelle*, Berlin.

서영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Email: helen11@snu.ac.kr

Received on August 30, 2015

Reviewed on November 15,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30, 2015

Accepted on December 24, 2015